

## 한국문화 쫓대 '속속들이 탐구'

### '빛깔있는 책들' 2백권 돌파

우리문화의 쫓대를 세워가는 책, 보이지 않게 문화의 힘을 높여 주는 책, 지난간 시간의 흔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책, 한편의 책이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빛깔있는 책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칭찬을 듣는다.

우리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기치로 89년 5월 첫 출간된 대원사(사장 장세우)의 <빛깔있는 책들>시리즈가 2백종을 돌파했다. 국민대 민길자 교수(지물학)의 <전통웃김>이 바로 2백번째권, 원래 2백권으로 예정된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고려청자>가 제작상 늦어졌다.

2백권 돌파이후 현재까지 <원종산> <해양생물> <무대미술감상법> <쪽빛들이기>까지 출간됐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련서적 찾기가 어렵던 시절인 지난 89년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불교문화에 깊은 의미와 우리생활과의 연관성을 사진과 함께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해내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확실한 색깔을 보여 주는데 일익을 했다.

남마다 쏟아지는 신간의 홍수 속에서 어떤 책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안방까지 찾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책들은 독자들의 손끝조차 스쳐보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출판가 현실이다. 그러나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불교문화, 민속, 고미술, 음식일반, 건강식품, 즐거운 생활, 건강생활, 한국의 자연, 미술일반 등 9개분야에 걸쳐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대표적인 문고 시리즈로 자리잡았다. 잊혀져가던 우리 전래의 문화적 향기를 일반인들 속으로 깊숙히 끌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 필러란 책을 저렴한 가격(3천5백원)으로 일반대중에게 선보이며 작자를 감내하는 이유도 문화지식의 대중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다. 이 시리즈

“과거는 현재의 좌표이자 미래예측”  
사진비중 ‘보는 책’... 불교문화 38권  
89년 시작... 5백권 목표 ‘우리것 알기’  
작년 세종문화상 수상... 스테디셀러 ‘자리매김’

는 한국인이거나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이면서도 잘모르고 지나치는 최소한의 우리것 알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꾸러져 왔다.

지금까지 발간된 불교문화 관련 책만해도 <석불> <요사체> <불상> <산사의 하루> 등 38권. 특정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박물관, 부도, 사경, 미륵불, 불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해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한국문화의 원형을 오늘의 빛깔로 복원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 불교가 우리전통문화의 원류라는 점을 일반독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불교의 분야에서도 우리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불교의 숨결을 사진과 글을 통해 소개해 왔다. 민속부문에서는 짚문화, 소반, 복식, 속대, 전통상례, 장승과 벽수 등 우리가 소홀하게 보아넘겨왔던 전통문화를 담아냈으며 한옥의 조형, 문방사우등 우리의 옛미술과 다도, 분재, 집구미기등 다양한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기존의 ‘읽는 책’ 개념에서 ‘보는 책’의 개념을 도입, 원색의 사진과 함께 글도 쉽고 간결하다. 이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독창적인 기획이 돋보여 대원사는 한글창제5백주년 지난해 10월 출간계 처음으로 세종문화상을 받는 등 스테디셀러로서 그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출판불황 속에서도 상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통문화 확산이라는 전문성을 지켜온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2백종 돌파를 계기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5백권을 향해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고 있다.

2백권동안 전통문화와 민속에서부터 현대문물과 생활문화로 이어졌듯이 앞으로 출간된 책들 또한 보이는 문화유산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유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삶 전체를 포용하고 다룰 수 있는 시리즈로 그 영역을 넓혀갈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 소재의 다양화 세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의 현대문물까지도 포괄한 기획 출판물 통해 프랑스 ‘갈리마르 총서’에 버금가는 한국판 문화총서에 도전하고 있다. 사장 장세우씨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마다 새로운 꿈을 꾸다.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좋은 책, 꼭 있어야 할 책이라는 인식을 전국민의 뇌리에 심으며 앞으로 세계 유수의 출판물과 어깨를 나란히 할 대표적인 한국서로서 거듭 나기위해 번역작업과 CD를 제작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지식의 대중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문화지식의 세계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이은자 사진=고영배 기자



◇ 빛깔있는 책들 가운데 불교부문 목록

제목	번호	글	사진	제목	번호	글	사진
불상	40	진홍섭	안장현·손재식	미륵불	59	김성룡	송봉화
사원건축	41	신영호	김대백	미애불	101	문민대	문민대
법종	42	이호관	손재식	통도사	110	이기영	통도사상보박물관
석불	43	진홍섭	안장현	영신재	117	홍윤식	석선암·손재식
옛절터	44	윤여향	윤여향	지옥도	119	이기선	안장현·윤영수
경주남산(하)	45	윤경렬	김구식·윤영수	산사의 하루	123	문민	김대백·안장현
경주남산(올)	46	윤경렬	김구식·윤영수	빈기사유상	124	황수영	황수영
석탑	47	정영호	손재식·안장현	불국사	127	김성룡	김성룡
사리구	48	김희경	손재식	공동불	132	진홍섭	진홍섭·안장현
요사체	49	이응복	손재식	민디라	135	홍윤식	홍윤식·윤영수
불화	50	홍윤식	홍윤식·윤영수	해인사	145	이재창	김성룡
과불	51	윤영수	윤영수	승려사	150	김건기	김성룡
신장상	52	김정희	김정희	범어사	154	황문순외	김성룡
보살상	53	박도화	박도화·안장현	대흥사(대원사)	155	목정배외	이완우·이응복·김성룡
사경	54	박상국	박상국	법주사	156	최연각외	소재구·김성룡
불교박물관	55	박찬수	윤영수	운주사	157	이태호외	한호균·유남해
부도	56	정영호	안장현·김성룡	부석사	171	배방선외	유남해
불화그리기	57	박정자	석선암	철불	178	최상은	최상은·한석홍
고승전영	58	김형우	김형우·윤영수	불교의식구	180	홍윤식	홍윤식

### 취재수첩

### 쉽고 유익한 책 '회두'... 필자선정 역점

1989년 5월달 36종의 <빛깔있는 책들>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실질적인 책만들기 3년만의 일이였다. 이후 한 해에 24종 이상이 발간돼 1997년 현재 205종이 발간됐다. 사실 <빛깔있는 책들>이 처음 출간됐을 때는 전통문화에 대한 열기도 뜨겁지 않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전통이나 미술에 대한 책이 출판된 일이 없었을 때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출판을 무모한 일이라 했고, 심지어는 정신나간 것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고 이제 <빛깔있는 책들>은 타 출판사에도 영향을 미쳐 유

사한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기획에서 출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 대원사의 노력이 <빛깔있는 책들>의 '빛깔'을 더욱 짙게 하는 원동력이다. 대원사는 출판할 책이 선정되면 논문이나 저서 등 관계자료를 검토해 독창성있는 필자를 선정한다. 필자선정을 위한 정보수집력도 대원사의 큰 노하우인 셈이다. 보통 1백30여명 분량의 원고집필을 위해 필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1년이지만 7년이 지났어도 아직 책으로 선보이지 못한 것도 있다.

위우면서도 유익한 책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실용적인 정보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이 시리즈만의 성격을 고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회두'로 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필자 섭외에는 신뢰성을, 원고 다듬어 있어서는 완벽을 기해왔기에 2백여권의 책이 제목과 사진은 재작가 달라도 빛깔만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 이제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소명의식을 재확인 하며 새로운 기회로 승부해야 하는 기점이 있다.



◇ '빛깔있는 책들'의 모습을 이끌어온 대원사 편집부 직원들. 책 한권 한권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정성과 노력이 스며있다.